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출장기간 : 2023.10.23.(월) ~ 10.28.(토)/ 5박 6일

출 장 지 : 일본 주고쿠, 간사이 지역(고베, 교토)

출 장 자 : 정환도 선임연구위원,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 1. 출장목적

- 전략과제 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 현지 답사와 전문가 자문
- 대전의 문화정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발굴
- 역사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 대전의 문화정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전략적 연구 수행 과정의 일환으로 유사 선진 사례를 방문 조사
- 대전의 역사 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 수집하는 방안 모색
  - 대전의 대표 근현대 유산인 테미오래(충남도지사관사촌)의 원형이 되는 건축물을 답사하여 현재 활용 방안을 조사하고 테미오래 등 대전 근현대 유형 건축 유산의 콘텐츠 활용방향에 대하여 참조
  - 백제문화권 역사관광콘텐츠의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의 영향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 답사
- 타 지역과 구별되는 대전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포용도시 대전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이를 위하여 일본 동아시아평화박물관을 방문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설립목적과 운영방향, 특성화 방안 등 참조 사례를 청취하고자 함
- 대전 문화콘텐츠 특성화 방안을 위한 참조 사례조사
  - 현대 대전시에서 도시특성화를 위하여 많은 문화인프라구축사업을 구상중임. 그 중 설립예정인 베이스볼드림파크도 지역문화콘텐츠로 특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출장을 통해 스포츠문화를 역사적으로 특화한 사례를 탐구하고자 함

2. 출장기간 : 2023. 10. 23.(목)~ 10. 28.(수) / 이동일 포함 5박 6일

3. 출 장 지 : 일본 주고쿠 및 간사이 지역(고베, 교토)

4. 출 장 자 : 정환도 선임연구위원, 한상헌 책임연구위원

II

출장 일정

일정	일정 소요 도시	업무수행내용
10.23(월)	효고현 *숙박:고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간사이공항(9:30~11:20)</li> <li>• 간사이공항 → 히메지시 이동</li> <li>• 히메지시 역사문화콘텐츠 견학</li> </ul>
10.24(화)	교토부 *숙박:고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츠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방문 - 면담 : 미키 타구아 외 2인(학예사)</li> <li>• 교토 니시키시장 견학</li> <li>• 교세라 미술관 견학</li> </ul>
10.25(수)	효고현 *숙박:고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고현 아시야시 도시재생지구 견학</li> <li>• 요도코 영빈관(F. R. 라이트 건축물) - 면담 : (요도가와 제강소 IR실 PR그룹)</li> <li>• 나라현 호류지 백제문화 답사</li> </ul>
10.26(목)	효고현 *숙박:오카야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엔 야구 역사문화관 방문</li> <li>• 고베시 → 오카야마현 이동</li> <li>• 오카야마시 기타노이진칸 견학</li> </ul>
10.27(금)	오카야마현 *숙박:미하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카야마시 생태 정원 의수원 견학</li> <li>• 오카야마 → 히로시마현 이동 - 면담 : 하야세 코우지(히로시마국립대 명예교수)</li> </ul>
10.28(토)	히로시마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로시마공항→인천공항(11:00~12:50)</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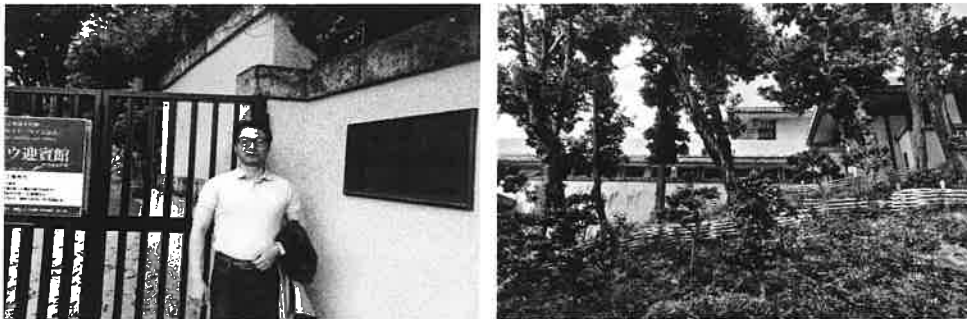
※ 당초 예정되었던 히로시마 도시 답사는 중간 경유지인 미하라 인근의 폭우로 인한 교통통제 상황이 발생하여 오카야마시의 근대문화유산과 생태공원에 대한 답사로 대체함

## 1. 대전 역사문화정체성 활용을 위한 참조사례

## 1) 테미오래(충남도지사관사촌)의 미학적, 건축적 연원 탐구

## ○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요도코 영빈관 방문

- 대전의 근대문화유산 테미오래의 도지사공관은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알려져 있음
- 본 출장에서 일본 내 대표적인 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건축물 중 하나인 요도코 영빈관을 방문하여 테미오래와의 유사성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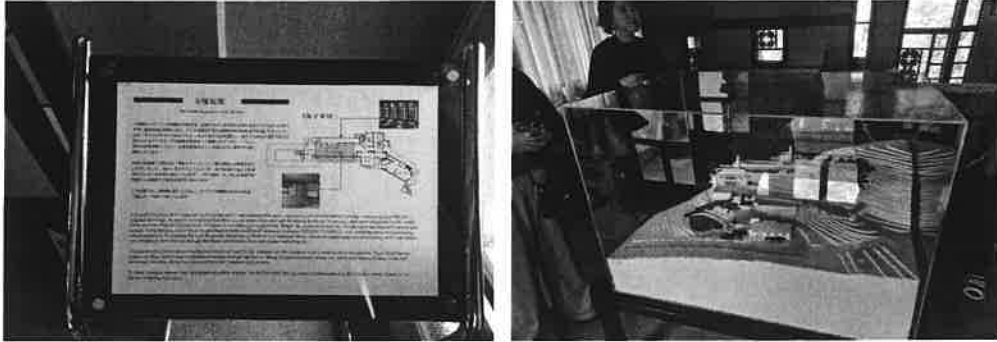


## ○ 요도코 영빈관의 설립 배경과 건축적 특성에 관하여 운영주체인 요도가와 제강소 소속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하고, 건축물 내부의 특성을 살펴봄

- 건축물 입구에는 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생애와 업적, 작품세계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으며, 생전 그가 작업했던 작업실 환경을 재현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움



- 요도코 영빈관의 설립 과정과 현재 발굴 중인 잔여 건물을 포함한 전체 지형도를 디오라마 형식으로 재현해놓음
  - 설립 당시의 일본 중앙정부와 효고현과의 협상과정, 요도가와 제강소의 전담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요도코 영빈관장의 설명으로 청취
  - 테미오래도 이처럼 건축가의 작업환경을 재현하고 관련 인물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다미 구조 바닥과 사각형 형태의 반복된 창 구조 등 내부 인테리어에서 테미오래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테미오래 내부의 이러한 유사성을 강조하면 테미오래 건축적 가치를 부각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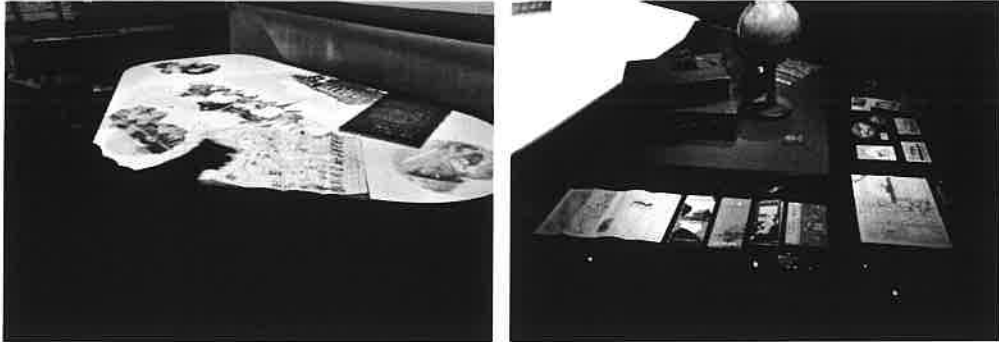


## 2) 대전 근대문화 유형유산의 활용방안

- 교토부 리츠메이칸대학 평화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대전이 근대도시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정부가 한반도와 만주를 잇는 관광자원화 정책을 펼친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전의 유성온천과 관련된 부분이 주목

## 할만함

- 당시 교통인프라 현황 등이 담긴 1920~40년대 대전 대흥동 일대의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19세기 일본 개항기시기의 외국인 공관, 사택 등이 밀집한 지역은 일본 내 3~4곳 정도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오카야마현 내에 위치한 기타노 이진칸이 가장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꼽힘
- 근대유형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면에서 테미오래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에서 광주광역시 양림동 지역과도 매우 비슷함
-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스타벅스 1호점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수많은 관광객의 유인장소로 각광 받음
- 기타노 이진칸 내에 별도의 관광안내소를 마련하였고 구역별로 수요자 맞춤형 투어패스를 운영중



- 이진칸은 영국관, 이탈리아관, 네덜란드관 등 다양한 국가들의 당시 생활상이 잘 재현되어 있음
- 하지만 개별 건물들마다의 콘텐츠 만족면에서 편차가 있음. 전시가 평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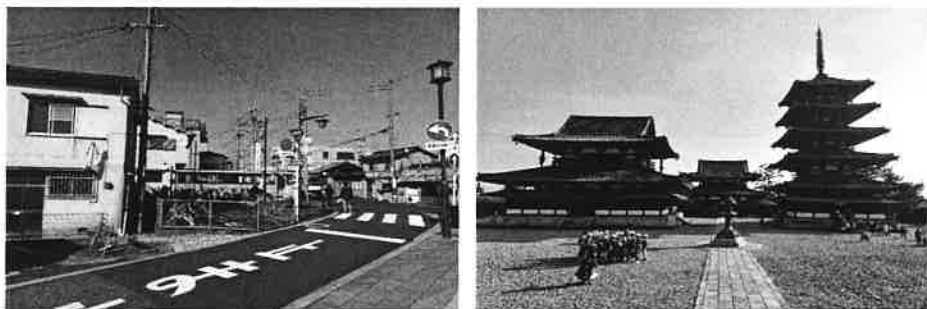
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코야마현의 대표적 근대문화유산으로 이 도시를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 대전시도 테미오래를 활성화하여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3) 백제문화유산의 근거로서 대전의 위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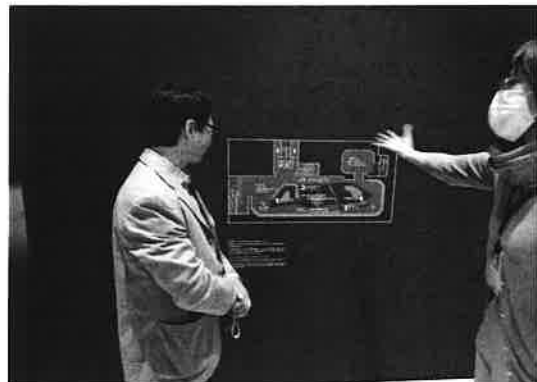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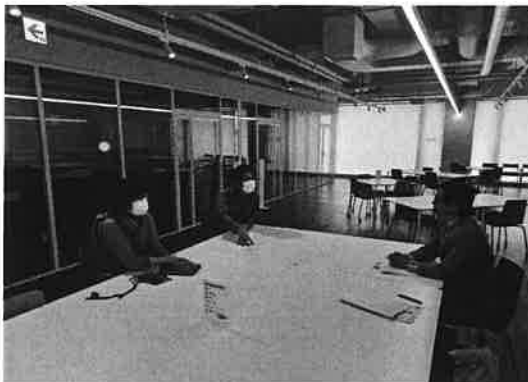
- 대전시는 금강유역권이자 충청지역의 대표 도시로서, 관광, 문화 등 정책 전반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지님
- 일본 나라현 지역은 백제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도시로 수많은 유산들이 분포한 대표적 역사도시임
- 특히 호류지는 백제, 후백제와 쇼토쿠 태자 간에 외교적 협력관계를 이룬 거점 공간으로서 역사문화적, 교류사적 의미가 큼
- 호류지는 전형적인 일본 농촌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충남 부여군의 정림사지 등과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지님. 호류지-나라현-교토시의 관계처럼 부여군-공주시-대전시를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유적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2. 대전 도시정체성의 가치 발굴과 확산 방안

### 1) 포용도시 대전의 가치 정립

- 1960년대 일본 일부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일본이 견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교토시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동아시아 평화박물관을 설립함
  - 박물관이 활동하면서 교토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표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함. 교토 내에 초중고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답사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츠메이칸 대학 자체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
- 평화박물관의 관계자, Naohiko KAMEDA, Miki Taguwa, Isao Otsuki 면담을 진행하고 평화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안내 받음
  - 평화박물관이 건립 배경과 취지 및 건립 과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설명 청취
  -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평화와 화해의 포용 도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 향후 대전세종연구원 국제세미나의 주요 주제를 동북아평화와 화해의 추동으로 설정하고 부대행사를 개최한다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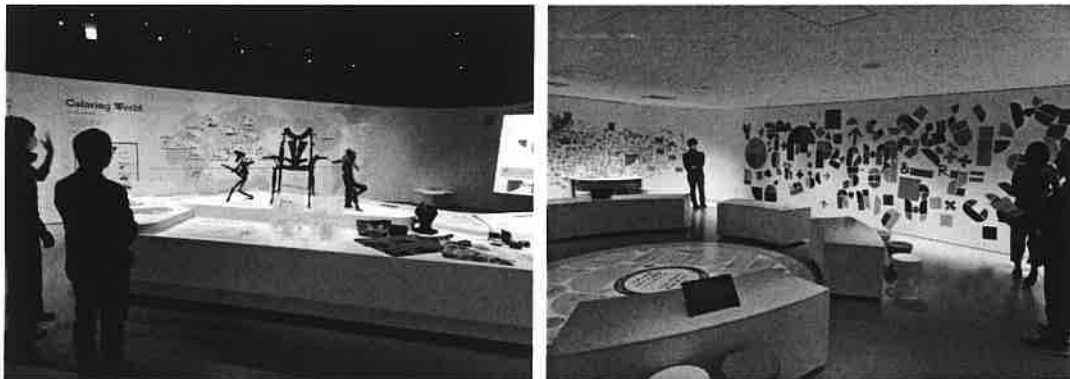
- 일본의 근현대사 과정에서 진행된 군국주의 만행과 이를 반성하고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등에 관한 소상한 자료들이 비치됨



- 또한 북방 소수민족인 아이누족에 관한 다수의 자료들도 전시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펼쳐진 평화운동을 조명하고 있음



- 세계시민의 화해와 평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예술작품도 전시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겁게 체험을 통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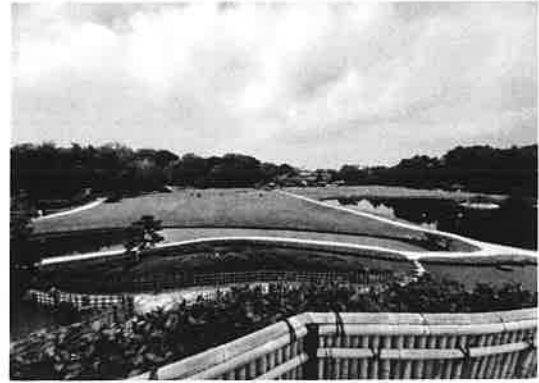
## 2) 일상 치유도시 대전

- 대전은 그동안 관광과 문화의 불모지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여행트렌드는 거대 규모의 집단형 관광이 아닌 일상적, 체류형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전에게 기회가 되고 있음

- 테미오래, 한밭수목원, 오월드 등 대전에도 일상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음. 이러한 장소들을 지친 일상을 심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부각할 필요가 있음

- 나라현의 위수원과 오카야마 생태공원은 도심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대전에서

도 벤치마킹 할 요소가 많음. 특히 이끼를 활용한 조경은 대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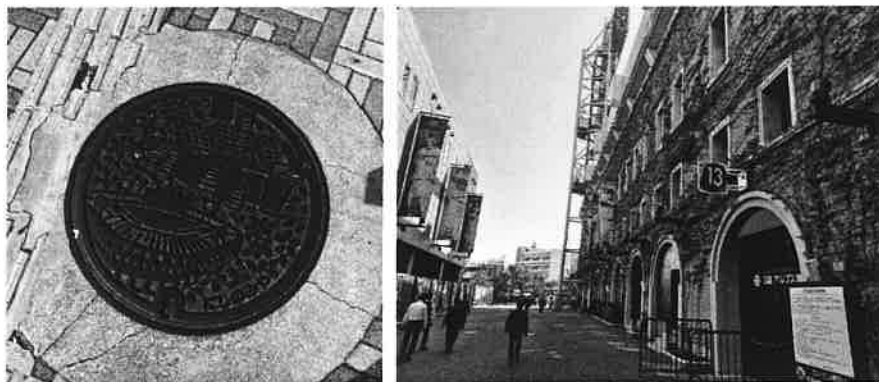


### 3. 대전 문화 콘텐츠 특화 방안

#### 1) 베이스볼드림파크 고교야구박물관 설립시 포함 콘텐츠 참조 사항

○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고시엔 지역은 일본 인기 프로야구단 한신타이거즈의 연고지로서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고시엔 야구장으로 유명함.

- 고시엔 지역에는 야구장을 형상화한 보도 맨홀 등 야구 도시로서의 브랜드 전략을 보여주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산재.



- 고시엔 야구장 둘레에는 야구 기념탑과 고시엔 야구대회(전 일본 고교야구대회) 우승 학교를 기념하는 평판이 벽면에 조성됨



○ 지역 연고팀 한신타이거즈의 과거 영광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고, 주요한 경기를 관람하도록 영상물이 여러 곳에서 상영되고 있었으며, 야구 체험시설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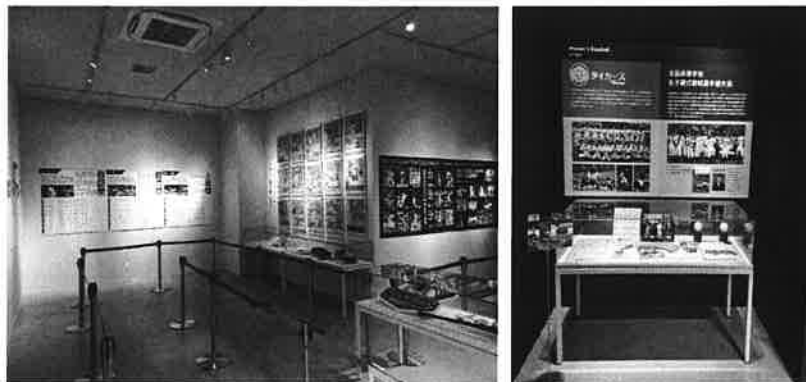
-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관객들이 운집하여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연고 야구의 콘텐츠 파급력과 인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음



○ 특히 연도별 팀 성적과 스타플레이어, 감독코치진 등 한신타이거즈의 오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관객의 흥미를 유발



○ 최근 스포츠 트렌드에 맞춰 여자야구에 대한 전시도 병행되고 있었으며, 동절기 야구장을 활용한 지역 미식축구팀에 대한 자료도 전시



○ 고시엔 야구장은 공간 그 자체로 깊은 역사성을 지님. 이 지역에 고시엔 야

구장이 건립되는 역사적 과정과 지리적 자료를 시안성 높은 방식으로 전시



○ 선수와 코칭스텝 뿐만 아니라 운동장 정리원 등 고시엔 야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숨은 기여자들도 별도의 공간으로 벽면에 전시하여 조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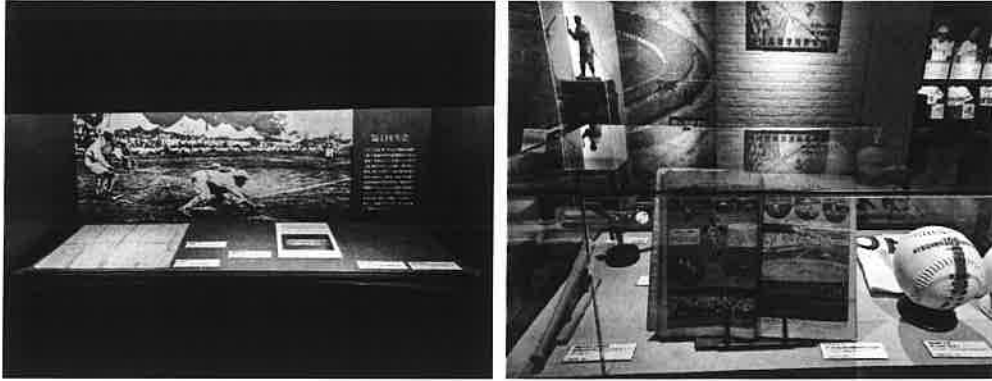


○ 고시엔 야구장 둘레에 위치한 공식 기념품 샵. 다양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고, 롤플레이팅 게임의 형태를 가미한 수집물 판촉 전략이 펼쳐짐



○ 고시엔 역사관은 한신타이거즈를 주제로 한 1관과 고시엔 야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2관으로 하여 별도의 건물로 구성됨.

- 일본에 야구가 전파되던 초창기의 역사부터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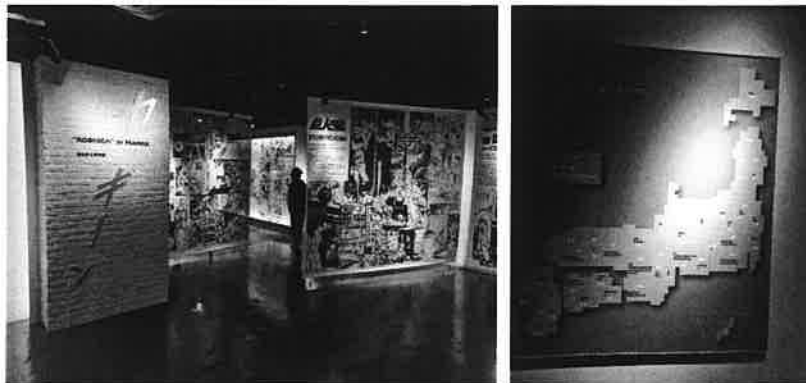


○ 100년 남짓한 일본 고교야구의 역사가 유서 깊은 유물·자료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음. 일본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고시엔 관련 영광의 기록들은 고교야구를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이 보존·기억되는 단적인 모습임.



○ 고시엔 야구는 그동안 수많은 문화콘텐츠로 활용되어 왔는데, 본 역사박물관에는 대표적인 망가 자료를 확대 전시하여 분위기를 조성

- 전 일본 광역 단위별 고시엔 야구 우승팀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표시



○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고교야구의 성지였던 서울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은 사라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들어서 있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에는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이 마련되어 1925년 경성운동장으로 건립된 후 2007년 철거되기까지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지만 그 시절 고교야구의 아련한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함

○ 따라서 새로이 개장하는 대전 베이스볼드림파크 내에 ‘한국고교야구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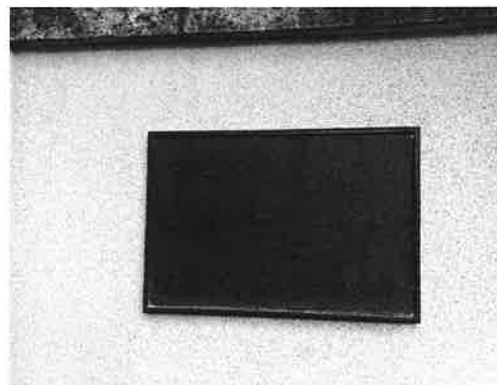
- 비록 대전이 한국 고교 야구의 중심지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불고 있는 콘텐츠 경쟁에서 고교야구의 역사와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선점한다면 스포츠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의 킬러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천안북일고, 대전고, 공주고, 청주 세광고 등 지역의 유서 깊은 고등학교를 부각하는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2) 기업-지방정부 협력 문화예술향유시설 특화와 경제활성화

○ 일본 정밀기기 대표 기업 교세라는 과거 교토시립미술관의 운영권을 승계하여 현재 교세라 미술관으로 특화 운영중

- 요도가와 제강소가 운영하는 요도코 영빈관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의 대표 유형문화유산을 운영하고 예술 콘텐츠로 활성화



○ 교토시의 대표적 역사유적지인 기요미쓰데라(청수사) 인근에는 도보로 이동

이 가능한 위치에 대규모 아케이드 시장을 조성

- 외국인과 타 지역 방문객의 기호에 맞춰 일본 전통술과 음식을 특화 판매하여 그 자체로 들러야 할 필수 관광지로 활성화 함
- 나라현 나라역 광장에서 가을에 수확하는 농산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개최. 지역의 특산물을 방문객에게 알리는 홍보효과가 큼



○ 일본 간사이 지역의 주요 시설과 공공기관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틈새 공간을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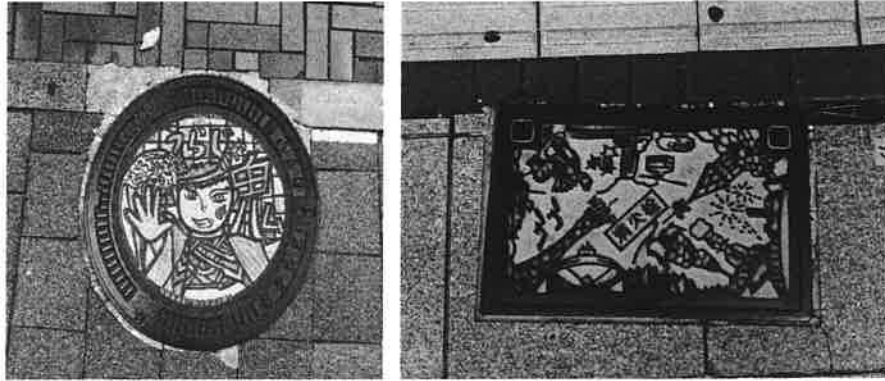
- 우체국 내에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홍보하고, 지하철 역사 내에는 지역 고유의 전통술을 고유의 용기에 담아 관심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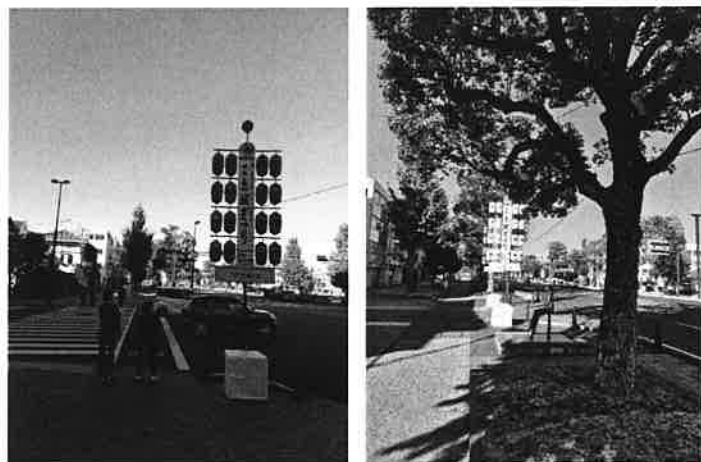


### 3) 문화콘텐츠의 도시브랜드 전략

- 일본 간사이, 주고쿠 지역 거리 곳곳에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츠화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조형물들이 흔하게 발견됨
  - 오카야마의 대표적 전통 서사 모모타로는 오카야마 곳곳의 보도 맨홀, 제빵제과 등을 통해 확산 되고 있음



- 히메지시는 대표 유산인 히메지성을 랜드마크로 하여 거리 곳곳에 개최될 예정인 대표 축제(마쓰리)를 홍보하는 조형물들이 설치됨
  -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색상과 디자인의 변화를 주어 도시풍경과 잘 어울림. 행인의 거리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존 공공미술프로젝트인 조각들과 조화를 꾀함



- 지역연고 스포츠 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은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공유에도 크게 기여함

- JR기차와 지역연고 프로팀을 연계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홍보하고, 지하철역마다 지역연고 프로팀의 경기일정을 다채로운 형태로 홍보



- 리츠메이칸평화안보대학원과의 면담을 통해 대전시 도시정체성의 중요 요소로서 ‘포용도시’의 가치 확산 당위성 인식
  - 향후 리츠메이칸평화안보대학원과의 국제세미나를 기획하여 우리나라에서 동북아평화의 거점도시로 대전을 부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근현대 유형유산의 가치를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사고하여 보존과 확산의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됨
- 대전에 건립예정인 베이스볼드림파크 내에 대한민국고교야구박물관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을 인식함
- 역사문화콘텐츠를 도시문화브랜드로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사례의 비결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